

# 조선과 한국의 변화, 열하일기는 알고 있다

20404 이익태

조선 말기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서양 열강에게 수많은 이권을 빼앗기며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한 시기로만 기억할 수도 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를 거부하고, 수동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서 조선의 사람들도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나라 수행원의 일원으로서 청나라의 열하에 방문하고 오는 방문기이다. 물론 열하일기 외에도 연행가와 같은 다른 기행문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열하일기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열하에 갔다 오면서 겪는 여정들이 아니다. 연암은 이러한 기행을 수행하면서 그의 여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청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기록하고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는 등 사회 비판적인 <호질>과 같은 작품도 작성하게 된다. 단순히 기록적 가치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를 모두 지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열하일기가 현대까지 가치 있는 기행문으로 계속해서 활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열하일기를 통해서 조선이 나아갈 수 있었던 미래, 박지원이 생각했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 황제도 개화기에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즐겨 읽고, 이를 개화에 참고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조선 시대의 변화와 그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열하일기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다.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박지원이 기행 중에 어떻게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나, 그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산해관 가는 길’에서 다루는 7월 15일의 ‘깨진 기와와 똥거름이 장관이더라’라는 내용이 인상 깊다. 주인공과 사신 일행이 요동을 지나면서 볼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를 이야기하고 구경거리를 이야기하던 도중, 청 왕조는 오랑캐와 짐승에 불과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청에 대한 업신여김을 드러낸다. 하지만 박지원은 남들이 무시하는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이 과거의 인습들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알뜰하게 배워 나라를 이롭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깨진 기와 조각과 똥거름을 장관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버리는 기와 조각을 다 집의 무늬로 이용해서 다채롭게 집을 꾸미는 모습, 똥오줌을 거름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청의 이러한 문화를 칭찬한다.<sup>1)</sup> 박지원도 서양이나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실학자적 입장을 띄고 있음에도, 그는 본질적으로 조선 시대의 유학자이기 때문에 청의 문화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연행가>와 같은 글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볼 수

---

1) 열하일기(박지원) 간접 인용

있다. 그러나, 청의 자연환경만큼이나 이러한 청의 실용적이고 유용한 기술을 보면서 이를 장관이라고 예찬하고,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박지원의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정신을 책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의 통념을 깨고 조선의 오래된 관습을 고치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서 박지원이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했던 학자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조선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주체적이고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의 문화는 무조건 오랑캐이고, 세력이 다해가는 명의 문화만 숭배하고 있었다. 이는 물론 주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이자, 보수적인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의 태도가 더욱 새로운 것이고, 우리보다도 더 앞선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떤 문화든지 가리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지원의 태도에서 우리는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볼 수 있으며,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실용적 가치를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다.

물론 현대에는 교류가 증가하면서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고, 우리 또한 그러한 변화에 항상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와 지금 우리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크게 다른가? 청나라의 우수한 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당시의 다른 수행원들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를 업신여기던 모습을 현대에도 미약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의 문화를 명의 문화처럼 다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존중하지 않는 경향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연암과 같은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역량이다.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의 통념을 깨줄 수 있는 열하일기와 같은 글, 또는 이러한 대화가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공론이 활성화된 사회를 만든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 싶다.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용적이라면 우리 문화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열하일기와 박지원의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나라는 세계화 사회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과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메시지와 교훈을 던져 주는 책인 것 같다.

수 백년 전에도 주체적으로 타 문화의 장점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여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연암의 말은 결론적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격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연암의 <열하일기>는 단순한 고전 문학이 아니다. 그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시대를 넘어선 고전이고, 이를 통해서 고종 황제처럼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인 것이다.